

학점제로 운영하는 직업계고 도입

교육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 발표 특성화고 졸업생 교사되는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직업계고 운영 자율성 보장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년(1~3학년) 구분이 없이 학점제로 운영되는 직업계고 도입이 추진된다.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도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해 직업계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직자가 직무역량 개발, 학습 등을 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해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전공간 원활한 이동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계고교를 도입한다. 다양한 직업교육을

위해 학년(1~3학년) 구분없이 학점제로 운영하는 직업계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직업계고 교육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후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특성화고 교사가 되려면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이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따거나 4년제 일반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후 임용고시를 치르는 경로를 거쳐 직업계고 현장을 모른다. 지적이 많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후 교사자격증을 부여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제는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 직업교육 훈련 혁신 방안은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선취업 후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직자가 직무 역량 개발·학습 등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추진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에게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기존 교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읍 수곡초가 2012학년도부터 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업 분석 전문가인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와 함께 참여형 수업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정읍 수곡초, 수업의 동력으로 날갯짓

수업 열기 가득 참여형 수업 연구

1:1 학부모 대면 상담 학생 성장 방안 모색

수업 협의회의 열기가 한창이다. 정읍 수곡초는 2012학년도부터 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업 분석 전문가인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와 함께 전학년이 배움을 형성하도록 참여형 수업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협의회부터 추출학생을 선정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수업 후에는 체계적으로 기록된 관찰물을 통한 수업 분석으로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한다. 참여형 수업연구는 수업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강조하는데 대상 학년 아이들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치 수업을 하는 교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같이 봐주고 이 아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같이 논의한다. 혁신학교 1기 학교

로서 수업 본연의 깊이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모든 아이가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6일에는 나고야 대학의 상카 아라니 교수, 시바타 교수를 초청하여 함께 학생의 듣기 능력 향상에 관해서 고민을 나누고 수업 개선을 위해서 3시간여의 결집 토의가 진행되었고, 6월 22일에는 기초학력 향상 방안 관해서 전라북도 학교교육과 김진 장학관, 김태유 장학사, 기초학력 교사 동아리 회원과 함께 수업을 분석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참학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7월 10일에는 정읍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코딩을 주제로 참여형 수업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재훈 기자

'꿈과 기회가 만나다' 아시아나 취업캠프

전주대, 항공승무원 역량 강화 위한 3단계 취업 프로그램 제공 도내 청년 대상 항공승무원 '이론·실습·실전' 현장실습과정 운영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균철)는 항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김포 아시아나항공 교육센터에서 '2018 아시아나 항공승무원 취업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항공사 입사를 목표로 하는 여대생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승무원과의 멘토링을 통한 실무 지식 습득 ▲유니폼 착용 ▲헤어&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SVC Role Play ▲위킹&기본행동예절 ▲비상착수훈련 등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대학일자리센터는 6월 25일부

터 29일까지 항공승무원 양성과정과 7월 6일 군산공항 이스타항공 견학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전에 대한 기본기를 익혔다.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승무원 취업캠프를 통해 직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여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균철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아시아나항공승무원 취업캠프를 통해 항공 전문 인력 및 서비스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청년들이 직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춰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가 항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김포 아시아나항공 교육센터에서 '2018 아시아나 항공승무원 취업 캠프'를 진행했다.

공립 유·초·특수 교원임용시험 개선

도교육청,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은 폐지... 수업실연 점수는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지난 27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치

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한 최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 위주의 선발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업능력과 인성에 대한 역량 검증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전주교대 졸업(예정)자와 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가 부여받는 지역가산점은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돼 우수한 지역 인재를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획일화된 수업설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업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수업구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모두 폐지하고, 대신 수업능력 평가를 위해

수업실연 점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이 과목별로 각각 점수가 조정됨에 따라 향후 임용시험을 앞둔 응시자들의 전략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전 안내는 응시자의 시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확정 공고문(9월 13일 예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직업계고 교사 78% "직업교육·직업훈련 구분 필요"

직업계고 전공 교과 교사들 10명중 8명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8~21일 전국 17개 시·도 직업계 고등학교 전공 교과 교사 283명을 대상으로 중등 후기 단계 직업교육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8.4%

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문자를 수신한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8%다.

또한 직업계고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기능해야한다는 교육부의 관점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74.2%로 매우 높았다.

전교조는 "중등 후기 직업교육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인간발달과 신체적 기능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직업계고 전공교과 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전공교과 교사들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